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 5년 기업·인프라·인재 삼위일체 결실

국가AI데이터센터·실증랩 등 기반시설 구축... 160여개 기업 유치
AI사관학교·AI융합대학·AI대학원 등 AI·반도체 기업맞춤인재 양성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5년 동안 추진해온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 프로젝트'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조성, 인재 양성에 이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광주형 AI 생태계'가 실질적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실제 광주시는 ▲160여 개 기업 유치 ▲지역기업들의 CES 혁신상 24개 수상 ▲국가AI데이터센터·실증랩·창업·교육 기반 구축 등 AI 산업 전반에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산업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다.

◇ 광주 AI 기업 'CES 2026' 혁신상 수상...세계적 기술력 입증

광주지역 인공지능(AI) 기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인 CES에서 잇따라 인정받았다.

내년 1월 열리는 'CES 2026'에서 지역 7개 기업이 최고혁신상 1개와 혁신상 6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로써 최근 4년(CES 2023~CES 2026)간 15개 지역기업이 총 24개 분야에서 최고혁신상 2개와 혁신상 22개를 수상하는 등 광주 인공지능(AI)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엘비에스테크는 차량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AI 솔루션으로 'CES 2026'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노디테크는 인공지능(AI) 기반 치과 투명교정 솔루션으로, ㈜고스트페이스는 인증·결제 통합 플랫폼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또 ㈜인디제이는 자율주행 탑승자

모니터링 AI 솔루션, ㈜올더타임은 여성 안전을 위한 AI플랫폼, 마인스페이스는 AI 기반 3D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딥센트는 AI 기반 디지털 후각 솔루션으로 혁신상을 받았다.

◇ 투자유치·기업이전 확대...160여 개 기업 광주로

광주시는 현재까지 349개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약 160여개 기업이 본사·지사를 광주로 이전하거나 설립했다.

광주시는 AI기업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공간, 기술 지원, 코디네이팅, 실증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세계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과 유망기업의 지역 안착을 위해 AI창업캠프에 입주공간 70개실과 공유오피스 53개를 운영해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지난 9월 개관한 첨단3지구 인공지능 집적단지 AI창업동은 67개실을 확보해 31개사의 입주가 진행 중이며, 추가 모집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올해 시비를 투입해 AI 최소요건제품 제작·사업화 지원, AI기업 투자유치 지원, 마케팅, 실증,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인공지능(AI)을 체감할 수 있는 시민·지역기업 중심 AI마우치 지원과 시민생활과 연관된 도시현안을 발굴해 지역기업이 보유한 AI솔루션에 접목·해결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하는 도시문제 해결형 AI솔루션 개발·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맞춤형 AI·반도체 인재 양성...기업 수요 기반 실무 중심 교육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와 지역대학은 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교육과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 AI·반도체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AI사관학교에서는 AI실무형 특화인재를, 지역대학과 연계한 AI융합대학 및 AI대학원 등에서는 학·석·박사급 AI융합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과 25개 펌리스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반도체 특화인재를 배출해 기업 현장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AI 인재와 기업이 긴밀히 연결되면서 기술력과 실무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 기업 협업 통한 집단 성장...AI 생태계 고도화

광주의 인공지능산업 성장은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과 데이터 공유 등 협업 중심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서로의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며 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단독으로는 어려운 고도와 기술을 공동 개발하거나 상호보완적 솔루션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동반성장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신영길 기자

광주 동구, 총장로 공실률 자체 조사결과 발표... 중대형상가 '13%'

부동산원 조사 '25%'와 절반 가까이 차이... "총장로 전 상가 전수조사, 조사 방법 달라"

광주 동구가 자체 조사한 총장로 상권 내 공실률 현황 파악 결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와 10~16%포인트(p)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동구는 24일 행정구역 기준 총장로 1~5가 내 상권 공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공실률 현황 파악 결과가 넓은 상권 내 일부 표본 상가의 공실 현황만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돼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부동산원은 총장 상권을 행정 구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으로 일컫어지는 주변 모든 구역을 조사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동구가 아닌 북구 누문동 일부 구역도 총장 상권으로 편입되면서 공실률 표본 오차가 7~15%에 달하고 있다.

동구가 지난 2개월간 총장로 상권 내 모든 상업용 점포를 대상으로 자체 전수 조사한 결과 총장로 상권 공실률

은 소형상가 4.09%(공실 88곳), 중대형상가 13.87%(공실 299곳), 집합상가 9.32%(공실 201곳)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총장로 1·2·3가의 공실률은 소형상가 1.71%, 중대형상가 14.06%, 집합상가 21.87% 등이다. 총장로 4·5가 공실률의 경우 소형상가 1.59%, 중대형상가 11.46%, 집합상가 3.06%로 확인됐다.

황금동은 소형상가 공실률이 7.55%, 중·대형상가 18.48%, 집합상가 5.96% 등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부동산원 조사 결과와 10~16%포인트 차이가 난다. 부동산원이 조사한 올해 2분기 금남로·총장로 상권의 공실률은 소규모상가 13.56%, 중대형상가 25.33%, 오피스 44.83%, 집합상가 25.11% 등이다.

동구는 이번 자체 조사가 '실질공실'을 재분류해 현장 반영도가 더 높다고 설명한다. 부동산원의 조사 방식은 면적기준과 부동산 유형으로만 파악돼 건

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빈 공간도 공실률에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동구는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분기별 공실률 조사 정례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공실률 자료를 토대로 공실지도를 작성해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선다.

나아가 공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체험·F&B·이간형 콘텐츠 중심의 소규모 창업용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도 힘쓴다.

동구 관계자는 "총장로 1~3가 지역이 다른 구간에 비해 공실 수가 많고 공실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심 상권의 특징인 노후화된 건물, 유동 인구 감소, 그리고 대형 쇼핑몰이나 신도심 상권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부동산원의 조사 방식과 자체 조사는 과정과 기준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채일 기자

GIST 산학연협의회 출범... 광주, 미래차 기술혁신 가속

지역 AI+X 산업 전환 이끌 협력 플랫폼 기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산학연협의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광주가 미래모빌리티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GIST는 최근 대학 오픈관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 산학연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20~21일 이틀간 '2025 한국미래모빌리티인žen서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GIST와 (사)한국미래모빌리티인žen서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GIST 산학연협의회는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 지역

산업계를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주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기술경영·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양성, 모빌리티 기업 대상 문제 해결형 PBL 프로젝트를 열고,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영상 축사에서 "광주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AI 산업을 기반으로 산업지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지역 산업과 연구기관을 잇는 핵심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시도 산학연 협력이 산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기철 GIST 총장도 "AI+X(다양한 분야) 기반 기술경영을 통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겠다"며 "산학연협회를 중심으로 현장 수요 기반 연구와 기업 맞춤형 교육, 산업 기능화 프로젝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현대자동차,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주요 기업·기관이 참여해 센서 통합 기술,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차량 고장 예측(PHM) 등 최신 성과를 공유했다. GIST는 이번 행사가 광주 지역 산학연의 기술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모빌리티·AI 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내년 3월 공식 개원을 앞두고 AI 기반 첨단산업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 중이다. /신종팔 기자

국토부, 9개 지자체에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스마트도시 인증을 올해 대구, 안양 등 9개 지자체에 대해 신규 인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구시, 경기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대도시), 서울 성동구, 구로구, 강남구, 전남 여수시, 서울 은평구(중소도시) 등 9곳을 '20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국

토부는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인증 평가는 53개 세부 평가지표로 평가해, 총 배점(2000점)의 70% 이상인 도시에 인증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는 대구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교통플랫폼·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는 각각 모바일 통합플랫폼·온마을 AI 복지콜 등 시민편의 및 복지서비스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전남 여수시는 글로벌 스마트관광·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서울 은평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플랫폼·서비스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됐다. /뉴시스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